

주택대출 금리 계속 상승 빛내서 집산가계 '비상'

5년 고정 주택대출 금리 일주일새 0.1~0.2%p ↑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채권 금리가 오르며 들쭉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 3분기 경제지표 발표로 우리 경제가 사실상 연간 3%대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까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가계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 혼합형)는 지난 27일 기준 일주일 전보다 모두 상승했다.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한선 기준 5%p에 진입한 KEB하나은행의 경우 3.953~5.173%로 지난 20일(3.827~5.047%)보다 0.126%p 더 올랐다.

국민은행도 20일 기준 3.41~4.61%였던 금리를 27일 기준 3.52~4.72%로 0.11%p 올렸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3.44~4.55%에서 3.64~4.75%로 인상했다. 우리은행

은 3.40~4.40%에서 3.59~4.59%로, 농협은행은 3.53~4.67%에서 3.72~4.86%로 모두 금리가 올랐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COPIX) 금리가 지난 16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석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픽스에 연동된 변동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코픽스 상승 이후 금리를 0.05%p 올려 2.87~4.18% 수준을 나타냈고, 국민은행도 3.04~4.24%에서 3.11~4.31%로 0.07%p 인상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은 미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조달금리가 되는 금융채(AAA) 5년물 금리는 27일 기준 2.638%로 일주일 전(2.529%)보다 0.109%p 올랐고, 지난달 말(2.280%)에 비해서는 0.358%p나 올랐다. 한은의 금리인상 시그널까지 강해져 단기간 오름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도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전국 2200가구(응답 2020가구)

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리수준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4p 높아졌다. 지금보다 6개월 뒤 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 가계가 많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으로 빚을 낸 가계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더불어만주당 박광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국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올라가 대출금리에 모두 반영될 경우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유란 연구원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한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금융부채 부가구의 이자비용은 가구당 308만원에서 364만원으로 늘고, 3%p 오르면 476만원까지 증가한다'며 '원리금 상환부담과 이자비용이 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오름세에 가계부실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금융 당국은 일단 은행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장금리 오름세는 어쩔 수 없지만 은행들이 각 사정에 따라 정하는 가산금리는 쉽게 올리 지 못하도록 하고,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는 이미 변동금리 대출 쪽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비중은 70%로 지난해 같은달(51.4%)보다 약 20%p 많아졌다.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다. 은행도 관리 부담이 큰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기 있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금리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관건이다.

앞으로 주택대출을 빌릴 가계는 3년 이상 장기 저금리 경우 고정금리를 택하는게 이자 부담 측면에서 낫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변규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자산관리컨설팅팀장은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3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 저금리로 쓸 때에는 고정금리를 택하는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日 찾은 韓관광객, 올해 521만명...40% '급증'

엔화 약세·사드영향 중국 대신 일본 방문 증가

올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4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조사국 국제경제부의 '최근 해외경제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수는 521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3%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누적 방문객수인 509만명을 뛰어넘은 수치로 지난해 증가폭(27.2%)보다도 1.5배 가량 많은 것이다.

올해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120만명으로 전년동

기대비 17.9%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우리나라 관광객의 비중은 24.6%에 달해 중국인(26.2%)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엔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면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9월까지 일본 엔화는 달러당 일평균 111.8엔 수준으로 지난해(일평균 108.8엔)보다 약세(환율 상승)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중국보다는 일본을 더 찾

은 것으로도 보인다. 일본의 저가 항공 노선 증대 등의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소비도 3조 2761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나 늘어났다.

반대로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9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줄어들었다. 일본인 관광객수도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수는 올 9월까지 172만462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66만324명)보다 3.9% 증가에 그쳤다. 중국인 관광객수는 319만 224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9.6% 급감했다.



'보여주는 혼수'서 '나를 위한 혼수'로

10년새 크게 변화...집에서 힐링할 수 있는 혼수품 원해

본격적인 가을 혼수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예비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혼수품 리스트가 10년전에 비해 확연히 바뀌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예전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혼수품을 장만했다면 이제는 '힐링', '여가'가 중심이 된 '나(우리)를 위한 혼수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 상업사 박물관의 지난 2007년 기록과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별도의 웨딩 회원제 클럽 S-웨딩클럽에서 올해 8월 설문조사한 예비 신혼부부들이 '갖고 싶은 위시(WISH) 혼수품'을 분석한 결과,

10년의 기간을 두고도 1위에서 5위까지는 여전히 TV,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필수 가전/가구 혼수품

이 차지한 가운데 필수 가전/가구를 제외한 6위부터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07년을 살펴보면 6위가 모피, 7위가 대리석 식탁, 8위가 흡시어터였지만 올해는 6위가 안마의자, 7위가 공기청정기, 8위가 의류 스타일러로 나타내며 확실히 '나(우리)를 위한 혼수'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를 영업담당 김예철 상무는 "최근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고 집에 있는 시간이 짧은 맞벌이 부부들로 이루어지면서 흡시어터 등의 보여주기식 품목보다 퇴근 후 집에서 힐링할 수 있는 '나를 위한' 혼수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농촌 어르신 식생활 건강교육 챙겨드려요"

8개 시군 2200여명...마을별 5주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어르신의 식생활과 건강교육을 지원하는 '2017년도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다.

대상은 전국 8개 시·군 75개 마을 2200여명이다. 이달 31일부터 12월 농한기까지 마을별로 5주간 진행된다.

전문강사가 사업 기간 3차례 마을을 방문해 고령자 맞춤형 식단과 질병 예방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 교육한다.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와 바른 식생활을 담은 '고령자용 식단·레시피북과 맞춤형 식생활가이드북'도 보급한다.

마을 단위로 지정된 조리인력(농협의 행복나눔이)을 활용해 공동급식 형태의 마을밥상을 주 2회 제공한다.

지역 보건소는 틀니관리·근력 강화 등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신체기능 저하와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백세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홀플러스 e파란재단(㈜유동,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나눔유형회 등) 기업·단체가 참여해 마을밥상 식재료 구입 비용과 현물을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민·관 협업 사업이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늘 Lotto 제 778회차 당첨결과 (2017년 10월 28일 추첨)

6 21 35 36 37 41 + 11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3	6,264,069,500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7	46,746,78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731	1,809,37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2,12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575,045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간: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일업일)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이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